

간호연구의 방향*

김 수 지**

I. 서 론

우리나라에서 간호교육이 시작된 것이 85년전(1930)이며 대학내에 첫 간호학과가 설립된지도 33년이 지났으며(1955년) 간호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도입되고 그 학문을 연구하고 토착화시키기 위하여 간호학회가 설립된지도 19년(1969년)이 되었다. 그동안 간호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간호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간호 실무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상간호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며 간호가 하나의 전문직으로서의 그 사회적 기능을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 기초가 되는 과학적인 지식체를 정립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정은 그럴 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간호이론 개발을 목적으로 특히 간호 현장인 임상의 제영역에서 간호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연구와 이론과의 관계, 연구 및 이론의 종류, 연구방법과 이론 개발간의 조화를 살펴봄으로써 간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연구 수행시 고려해야 할 윤리적 측면에 대한 언급과 실제로 간호연구를 수행하는 진행절차에 대한 개요를 서술함으로써 간호의 현장인 임상에서 간호연구의 시도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연구와 이론

자연이나 사회현상에 관한 인간의 지식은 반복되는 시행착오적 경험, 논리적 사고 및 과학적 방법등 여러과정을 통하여 얻어지고 축적될 수 있다. 과학적 방법은 이중 가장 발달된 방법으로 경험과 논리적 사고등을 모두 동원함과 동시에 질서정연하게 정립된 체계적 절차를 통하여 자연이나 사회현상에 관한 지식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학적 방법에 사용되는 중요한 두 가지 수단이 연구와 이론이다. 연구란 자연이나 사회현상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주관적인 감정이나 편견(Bias)없이 가능한 한 통제된 실증적 상황에서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검증하는 활동을 말하며(Kerlinger, 1979), 이론이란 자연 또는 사회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논리적 사고나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문장들의 집합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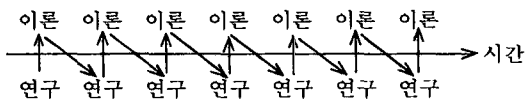
따라서 연구와 이론은 상호보완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는 아직 검증되지 아니한 가설이나 사상(i-dea)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새로운 이론을 산출하게 되고, 이론은 연구대상이 되는 가설을 연역적으로 도출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해준다. 이 두 관계는 탐과 계란과의 관계와 같이 연구는 이론개발에 선행되어야 하고

* 본 원고는 1988. 5. 24 임상간호사 주최 제7회 학술집담회의 주제 강연내용임.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이론은 연구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Bacon(1863)은“선 연구 후 이론”(Baconian Strategy)과“선이론 후연구”등으로 과학적 지식개발 방법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와 이론은 위와 같이 양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기존의 이론은 새로운 연구를 유도하고 새로운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이론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을 도출케 한다. 이러한 과학적 활동이 계속될 때 그 분야의 과학은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도표 1> 연구와 이론의 관계



2. 연구의 종류

간호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간호현상에 관한 인간의 지식을 개발하고 정리하기 위한 과학적 수단으로서의 간호 연구는 그 접근 방법이나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외생변수의 통제가능성 여부와 독립변수의 조작가능성 여부에 따라 연구를 실험실연구(Laboratory experimental), 현장실험연구(Field experiment), 사후연구(Expost Facto), 조사연구(Survey) 등으로 나눌 수도 있고, 시간적 차원에서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로 나눌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주어진 주제와 더 관련이 깊은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정성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와 정량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
- 2) 연역적(Deductive)와 귀납적(Inductive) 연구.
- 3) 이론도출적(Theory Generating) 연구와 이론검정적(Theory Testing) 연구.

정성적 연구란 관계된 현상들을 현상학적 접근을 통하여 활동 당사자의 시각에서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이를 통하여 (1) 현상들의 과정 및 형태와 (2) 이들간의 차이를 기술함으로써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Bogdan and Taglor, 1975) Garfinkel(1967)이 제시한 Ethnomethodology가 바로 정성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의 한 예라고 하겠다. Steinbeck(1962)이 논한“비목적론적(Nonteleological)” 사고가 바로 정성적 연구에 필요한 기본시각이라 하겠다. 이에 반하여 정량적 연구란 계량적 방법을 통하여 사회현상의 형태와 그 차이의 원인 및 결과를 규명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Lofland, 1971). Comte(1816)와 Durkheim(1938)에 의하여

정리된 실증주의적(Positivism) 연구방법론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며 Steinbeck(1962)의 “목적론적(Teleological)” 사고가 바로 정량적 연구에 필요한 자세라고 하겠다. 정성적 연구를 기술적 연구라고 한다면 정량적 연구는 관계규명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정성적 접근방법과 정량적 접근방법은 상호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학문적 체계화가 상당히 정립된 분야에서는 정량적 접근이 이론개발에 더 바람직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현상자체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분야에서는 정성적 접근이 더 바람직하다.

즉, 정성적 접근방법을 통한 현상의 파악과 이를 통한 이론적 가설의 도출없이 정량적 접근방법이 적절히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사회과학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연구과라다임은 연역적 방법(Deductive method)이다. 연역적 연구방법이란 관련된 기존이론들을 바탕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현상에 관한 이론적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 자료의 검정을 통하여 지지하거나 기각시키는 연구접근 방법을 말한다(Kaplan, 1964).

이에 비하여 귀납적 방법(Inductive method)이란 과거에 별로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연구영역에 관하여 관찰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개념과 명제로 발전시켜 실증적으로 검정하는 연구접근방법을 말한다. Glaser and Strauss(1967)가 제시한 Grounded theory approach가 바로 귀납적 연구방법의 좋은 예이다. 연역적 연구방법이 학문적 체계가 정립되어 있고 관련 기초학문분야가 잘 발달된 영역에서 기존의 이론적 개념간의 새로운 관계에 관한 가설을 도출하는 연구방법인데 반하여 귀납적 연구방법은 창의적 관찰을 통하여 새로운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개념화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학문적 체계화의 정도에 따라 연역적 방법이나 귀납적 방법을 선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역적 접근을 통하여 관련 변수들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들간의 관계는 귀납적 방법을 통하여 규명하는 혼합식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이론도출적 연구란 연구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 아이디어, 가설 등을 규명하려는 창의적 연구과정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이론검정적 연구란 귀무(영)가설을 기각시킴으로써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가설을 검정하는 연구이다.

이론도출적 연구와 이론검정적연구는 동일차원에 있는 이론 개발과정의 두 방법이며, Sperry(1979)는 이

를 다음과 같은 다섯단계로 세분하고 있다.

- | | |
|----------|---------------|
| 이론도출적 연구 | 1. 탐색적 단계 |
| | 2. 개념개발 단계 |
| 이론검정적 연구 | 3. 가설도출 단계 |
| | 4. 내적타당성검정 단계 |
| | 5. 외적타당성검정 단계 |

탐색적 단계의 연구는 모든 학문분야가 그 이론을 개발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첫단계로써, 연구영역의 탐색, 즉 관심분야의 현상을 규명하고 중요한 특성들을 기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둘째단계인 개념개발단계는 연구영역의 지도를 그리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으며, 주로 관심영역의 현상기술에 중요한 변수들과 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단계인 가설도출단계의 연구는 둘째단계에서 규명된 변수들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설정함으로써 둘째단계에서 작성된 지도를 수정보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위

의 세가지 단계의 연구를 이론도출적 연구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특정분야에 관한 가설이 설정되면 제시된 가설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가 검정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가설을 채택하거나 수정하게 된다. 이 단계는 네번째단계인 내적 타당성검정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인 외적 타당성검정 단계에서는 네번째단계에서 채택된 가설이나 이론이 어느정도나 다른상황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는가를 검정한다.

이러한 다섯단계는 바로 이론개발의 과정이기도 하며, 한 학문분야가 이론적으로 발전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탐색적단계의 연구없이 다음 단계로 뛰어넘을 수 없으며 또한 계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탐색적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검정단계까지 진보해 가지 않을 때 학문적 발전을 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다섯 연구단계의 특성과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면 <도표 2>와 같다.

(도표 2) 연구의 단계와 특성

연구의 단계- 연구과정의 특성	이론구축			이론검정	
	1. 탐색	2. 개발	3. 가설도출	4. 가설검정 (내적타당성)	5. 가설검정 (외적타당성)
목적	영역에 대한 탐색	영역의 범위설정	설정된 영역의 범위의 개성 및 발전	개선 및 발전된 영역의 범위에 대한 검정	
연구문제의 본질	- 무엇이 있는가 - 주요문제는 무엇?	주요변수들은?	변수들의 관계는?	이론이 실제로 타당한가?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 및 범위는?
연구설계의 본질	심층적인 종단적 사례연구	소수의 종단적 비교사례연구	다수의 종단적 비교 사례연구	단일모집단의 대량표본	다수모집단의 대량표본
자료수집 방법	관찰 비구조화된 면담기록	관찰 구조화된 면담기록	관찰 구조화된 면담기록 소단위 설문지	구조화된 면담 기록 개·폐식설문지 실험실 실험 연구 현장실험연구	구조화된 면담 기록 개·폐식설문지 실험실 실험 연구 현장실험연구
자료분석 방법	Insight Categorization	Factor Analysis Semantic Differentials Multidimensional Scaling		X, t-test r, ANOVA, ANCOVA Regression Multiple Correlation Regression	

				Discriminant Analysis Canonical Correlation
결과에 대한 본질	현상에 대한 규명, 서술	규명, 서술된 현상에 대한 수정, 보완	현상에 관한 가설도출 및 설정	유사대상에 대한 가설의 지지 또는 기각

3. 이론의 종류

위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연구의 결과는 곧 이론을 창출하게 한다.

이론을 그 기능에 따라 학자들은 여러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 두가지(과학철학자와 사회학자) 분류를 보면 <도표 3의 ☆>과 같다.

<도표 3> 기능에 의한 이론분류

Dickoff & James Reynolds(1971)(1975)	이론발전의 단계 측면	
요인-분리이론	분류적 이론(기술 현상기술적 이론적)	이론발전의 단계 측면
요인-관계이론	설명적 이론	상관관계적 이론
상황-관계이론	원인이해적 이론	인과관계적 이론
상황-산출이론	통제적 이론	처방적 이론

☆부분의 두가지 분류와 기타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분류들간에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이 공통점들을 이론 발전의 단계적 시각에서 정리하여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부분).

1. 현상기술적 이론
2. 상관관계적 이론
3. 인과관계적 이론
4. 처방적 이론

현상기술적 이론은 현상에 관한 기본적 자료를 파악하고, 분류하며, 관련변수를 제시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이론으로서의 기능상 첫 단계에 해당하며, <도표 3☆>에서 제시한 것들 중에는 요인-분리이론, 요인-관계적 이론중 일부 이론이 여기에 속한다.

상관관계적 이론은 현상기술적 이론으로 부터 도출된 변수들간의 상호관계를 상관관계적 수준에서 파악하는 이론으로서 요인-관계적 이론의 일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사회과학의 많은 분야가 아직 이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과관계적 이론은 상관관계적 이론을 더 발전시켜 변수들간의 인과관계까지를 제시하여 주는 이론을 의미한다. <도표 3>에 제시된 것들 중에는 상황-관계적 이론, 원인이해적 이론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처방적 이론은 위의세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해낼 수 있는 수준의 이론을 말한다. 위에서 제시한 것들 중에는 상황-산출적 이론, 예측적 이론, 통제적 이론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가장 바람직한 이론은 말할 것도 없이 처방적 이론이며, 모든 학문분야는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 이론의 뒷받침없이 상위의 이론이 개발되지 않는다.

4. 연구방법과 이론 개발간의 조화

처방적 이론까지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각 단계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하며, 각 단계의 이론 개발에는 그 수준에 맞는 연구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연구의 종류에 관한 논의시 제기한 학문적 체계와의 정교란 바로 이론발달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며, 학문적 체계화의 정도에 따라 연구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바로 연구방법과 이론개발과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방법과 이론발전의 수준간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구가 이론 개발에 기여하지 못하고 연구재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간호행위에 관한 연구분야에서 관련변수 및 이들에 관한 조작적 정의나 상호관계에 관한 기초적 이해가 결여된 상황, 즉 현상기술적 이론의 개발을 통한 변수들의 파악과 이들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도출이 결여된 상황에서 계량적 방법을 통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시도한 간호학적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 분야의 이론개발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 일부 간호학자가 기술적 이론개발에 적절한 탐색적 방법을 통하여 가설도출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떤 연구 방법이 어떤 이론 개발과 조화를 이루는가? 기술적 이론 개발에는 정성적 연구방법이 정량적 연구방법보다, 귀납적 방법이 연역적 방법보다 이론 도출적 방법이 이론 검정적 방법보다 적절하다. 즉, 이론 도출적 연구에 필요한 방법이 바로 정성적 방법이며, 귀납적 연구에서도 정성적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정성적 연구방법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여러 변수들간에 관계를 탐색적으로 관찰하고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다각적 연구를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하게 될 기술적 이론 개발에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이에 반하여, 더 상위의 이론개발을 위해서는 소수 변수들간의 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정량적 방법을 통하여 이론 검정적 연구를 행할 수 있다. 즉, 기술적 이론에서 제시된 많은 변수간의 가설적 관계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정량적으로 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상관관계적 가설이나 인과관계적 가설을 검정하여 상관관계적 이론이나 인과관계적 이론을 개발하게 되고 이들의 축적과 상호연결을 통하여 처방적 이론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다.

5. 한국 간호 연구의 방향

오늘날 우리 한국내 간호실무 현장 상황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간호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1) 간호현상을 서술하는 기술적(Descriptive) 이론개발을 위해 정성적연구, 귀납적 연구, 이론 도출적 연구방법에 입각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특히 간호현상에 관련된 유의성(Significance)이 높은 영역 또는 개념-체를 들어 불안, 통증, 스트레스, 수면, 이행(Compliance) 지지(support), 돌봄(caring) -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임상적 사례연구가 직접적인 관찰을 통하여 많이 시도되어 그 영역이나 개념에 대해 탐색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에는 단순한 기술적 통계법(Descriptive Statis)의 사용이면 족하며(경우에 따라서는 Factor Analysis 같은 고급통계도 필요함) 오히려 이들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그 현상이 의미하는 내면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① 탐색적 단계의 연구에서 현상의 영역 또는 개념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등에 초점을 둔 심층적인 종단적 사례연구의 시도가 시급하다. 즉 관찰과 open Question, 기록에 대한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현상의 영역에 대한 규명과 서술이 되어야 한다.

② 개념개발 단계의 연구에서는 영역에 대한 개념 설정을 목적으로 ①에서 규명된 소수주요 변수간의 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즉 “주요변수들은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이들 파악된 주요 변수간의 관계분석에 초점을 둔 소수의 종단적 비교연구 설계로 관찰과 구조화된 면담,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분석(Factor analysis, Semantic Differentials, Multidimensional Scaling 등의 통계기법이용)을 통해 현상에 대한 서술이 재수정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③ 가설도출단계의 연구의 ②에서 설정된 영역의 범위를 발전, 개선시킬 목적으로 재 변수들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다수의 종단적 비교 사례연구 설계로 관찰, 구조화된 면담, 기록, 소단위 설문지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분석(Factor Analysis, Semantic Differentials, Multidimensional Scaling 등의 통계법 이용)을 통해 현상에 관한 사실도출 및 설정이 되어야 한다.

2) 임상에서 수행된 실증적 연구(Empirical research)를 해야 한다. 이는 연구 결과를 임상적으로 적용하고 간호실무에 유용한 연루(implication)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증적 연구는 간호실무를 향상시키는 열쇠로서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간호의 이익을 측정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3) 간호현상에 관련된 제 개념 및 간호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를 많이 수행해야 한다.

4) 같은 연구를 되풀이하는 반복연구(replicated research)를 시도해야 한다. 간호교육이나 행정 또는 실무를 포함한 실무자가 한가지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절차를 받아들이기는 좀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같은 연구자가 다른 상황에서 또는 다른 연구자가 다른 상황에서, 다른 연구자가 같은 상황에서 더 광범위한 표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같은 연구를 되풀이하여 얻은 결과는 신빙성과 타당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신뢰하고 적용할 수 있다.

6. 간호연구 수행시 고려해야 할 윤리적 측면(요건)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간호연구를 수행할 때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보호해 주는 고려가 함께 따라야 한다.

① 연구 참여동의서

간호연구 수행시의 고려해야 할 윤리적인 측면에서 주요원리는 대상자가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나치의사에 의해 수행된 의학실험은 그들의 잔인성에 대해서 뿐 아니라 참여

자가 협조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절차는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자발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절차는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연구가 정당한 것만큼 이행하기 쉬워보이나 불행히도 모든 경우에서 그렇게 쉽지않은 않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 간호원의 행동에 대해 서술적 관찰연구를 수행하려 할 경우 간호원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들은 행동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과학적인 연구란 현상간의 관계나 현상에 대해 일반화된 원리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연구에 참여시킨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비자발적인 사람에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것은 분명히 곤란한 문제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서를 구해야 할 윤리적인 의무가 있으나 동시에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과학적 지식에 공헌할 의무도 있다. 자발적인 참여의 요구가 연구의 가치를 위협할 때 연구자는 그 주제에 대한 비자발적인 참여자의 결과를 평가하고 연구의 잠재적인 기여도에 대한 이들 결과의 비중을 측정해야 한다.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참여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믿을 경우 그는 참여 동의서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② 손상받지 않을 권리

연구자는 대상자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손상받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한 또는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경험에 참여자가 노출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모든 과학자는 실험 동물에 의한 광범위한 시험을 거치기 전에 속성과 결과를 알 수 없는 약물을 인간에게 투여하는 것이 연구자의 권리인가에 대한 의문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참여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결과는 매우 포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와 민감성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어떤 대상자가 개인적인 견해나 자신의 약점, 공포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경우 그러한 질문은 대답하기 싫거나 잊기를 원하는 내용일 수 있다. 연구자는 절대로 질문에 대답하기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질문의 성질이 대상자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③ 익명 및 비밀보장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사생활을 침입하는 것이다. 간호연구자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없이도 환자로부터 정보를 얻고 참여자의 개인적인 관심을 질문할 수 있는 행운을 가졌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 대한 정보의 제시는 참여자보다는 연구자를 돕는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보를 얻는데 이용된 절차와 정보 그 자체는 그것을 제공한 개인의 단점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참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두가지 기점으로 익명과 비밀보장이 있다. 연구 참여자는 익명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가 제공된 정보와 참여자를 연결시킬 수 없게 한다. 연구가 병원의 환자에 대해 시행되었을 경우 익명의 기전은 성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간호사에게 질문지를 배부할 경우 참여자의 익명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말해줄 수 있다. 면담에 의한 연구에서는 익명이 어려우므로 연구자는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제공한 정보가 불법행위이거나 이탈행위에 관한 것일 경우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절차가 요구된다.

이상 제시한 윤리적인 배려는 연구시에 직면해야 할 주요한 도덕적 딜레마이며 인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경우 연구자는 이들 모든 사항에 민감해야 한다.

Ⅲ. 결 론

전문직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상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의 질(quality)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실무적용은 직업적 이미지를 높이고, 업무의 기본이 되는 과학적인 지식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할 책임과 간호대상자에 대한 의무를 키워나가는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확실한 이론적 개념에 기반을 둔 실무 중심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간호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요구된다.

간호실무현장에는 아직도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간호실무의 기능과 형태를 이해하게 하고 설명해 줄 뿐 아니라, 나아가서 바람직한 상황을 예측, 처방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간호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간호현장인 임상적 제 영역에서 간호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본고에서는 연구와 이론과의 관계, 연구 및 이론의 종류연구방법과 이론개발간의 조화를 고찰하고 간호연구 수행시 고려해야 할 윤

리적 측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간호의 현장인 임상에서 간호연구의 시도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수지의 간호연구 서술 : 수문사 pp.39-55, 1987.
- Bacon, Francis The Work of Francis Bacon : *Novum Organum* Vol. III Translated by James Spidding et al. Cambridge, England : Riverside Press, 1863.
- Bogdan, Robert and Steven J. Taylor,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New York : Wiley, 1975.
- Comte, Auguste, *The Positive Philosophy*, London : George Bell and Sons, 1816.
- Dickoff, James and Patricia James "Theory Development in Nursing" in Phill is J. Verhonick(ed) *Nursing Research*, Boston : Little, Brown and Co., pp. 45-92, 1975.
- Durkheim, Ernile,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New York : The Free Press, 1938.
- Garfinkel, Harold, *Studies in Ethnomethodolog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69.
- Glaser, Barney and Anselm Stratss,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 Aidine Publishing, 1967.
- Kaplan, A. *The Conduct of Inquiry* San Ffrancisco : Chandler Publishing and Z.A. Malik, 1964.
- Kerlinger, Fred N.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3.
- Lofland, John *Analyzing Social Settings*, Belmont, Callf : Wadsworth Publishing, 1971.
- Reynolds, Paul D.A *Primer in Theory Construction* Minneapolis : The Bobbs-Merrill, 1971.
- Spender, J. C. "Theory Building and Theory Testing in Strategic Management" In Dan E. Schendel and Charles W. Hofer(ed) *Strategic Management : A New View of Business Polcly and Planning* Boston: Little, Brown and Co., pp.394-404, 1979.
- Steinbeck, John. *The Loo of the Sea of Cortez*, New Yord, The Viking Press, 1962.

- Abstract -

A Direction for Nursing Research

Susie kim*

This parper argues that nursing theories ideosyncratic to situations should be developed through research, if nursing practice is to be effective in achieving the objective of promoting, maintaining, or restoring health of clients / patients. After reviewing (1) the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ory and research, (2) the type and sequence of research for theory- building, (3) the hierarchy of theories, and (4) congruence between the type of theory and research approach, it suggests (1) that more exploratory studies (research) should be undertaken as a way to develop descriptive theories that may lead to new hypotheses, (2) that more empirical studies should also be undertaken to test if new hypotheses generated from exploratory studies may be useful in the setting of nuring practice, (3) that more studies should be undertaken to develop useful measures of nursing concepts, and (4) that more replicated studies should be undertaken in order to give rise to the external validity of new theories. It also discusses the ethical considerations of nursing research in the future.

* Ewha Womans University, Nursing College.